

# 사회적 거리두기 2주 긴급 연장

【2020. 4. 04.(토) 14:00】

1. 현재 홍성군 코로나19 확진자는 2명, 자가격리자는 31명입니다.
2. 현재 홍성 의료원에는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1명과 천안, 대구 지역 확진자 7명 등 총 8명이 격리병실에서 치료중입니다. 차단 관리중으로 지역 사회 감염 위험은 전혀 없으며, 홍성 의료원도 정상 진료 중입니다.
3. 현재 관내에는 해외입국자(27명), 타 시군 확진자와 접촉자(4명) 등 총 31명이 자가격리중이며 모니터링 결과 특이증상은 없습니다.
4. 우선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기여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 4월 5일까지 시행예정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확산 차단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6. 이에 정부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 50명 내외 수준 감소를 목표로 오는 19일까지 감염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체육 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제한 조치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의 연장을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7.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전개로 다소 불편 하시겠지만 내 이웃, 가족을 지킨다는 배려심으로 조금만 더 긴장의 끈을 다 잡고 사회적 거리운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이용 중단
- ◇ 불필요한 외출, 모임 연기 또는 자제
- ◇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 거리두기
- ◇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